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는것은 국제적정의실현의 중요요구

진 재 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98페이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은 국제적정의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국제적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나라들이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정의가 승리하고 부정의가 패하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며 법칙이다. 그러나 정의의 승리는 그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 국제적정의는 오직 자기의 힘으로만 쟁취할수 있다.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는것이 국제적정의실현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자기 힘을 키워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장래운명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기때문이다.

력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국가가 출현한 이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민족국가로 단위로 하여 개척되게 되였으며 국제사회는 국가를 기본구성부분으로 하여 발생하고 발전하게 되였다.

매개 민족국가들은 출현 초시기부터 자기의 민족적특성과 생활방식에 따라 자체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공존속에서 한걸음한걸음 전진하여왔다.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과정속에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도 있고 누가누구에게 예측되는 종속관계도 있으며 연합의 간판밑에 굴욕적인 동맹관계가 맺어지기도 한다.

종속관계에 있는 나라들사이에 정의에 대하여 논의할수 없다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협력과 단합의 간판밑에 맺어지는 굴욕적인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사이에도 정의에 대하여 논의할수는 없다. 그것은 이 관계들이 다같이 자주성에 기초한 호상존중과 우호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예측의 관계이기때문이다.

진정한 국제적정의가 실현되자면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는 자기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면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나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해당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를 믿고 자체의 국력을 다져나갈 때 마련되게 된다.

국제적정의의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호상협력과 교류와 같은 지원이나 방조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것이며 결정적요인으로서는 될수 없다.

물론 해당 국가들사이의 경제적협조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시기 협력과 교류가 해당 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방조도 어디까지나 민족국가들의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협조능력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자체의 힘이 있어야 은을 낼수 있다.

자강력이 있어야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이 보장되고 국제적정의의 실현할수 있다는것은 정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승리의 력사가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외세의 침략과 략탈의 희생물이 되어 신음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으면서도 국권을 외세에게 통채로 강탈당하고 갇은 민족적멸시와 학대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난날의 수난의 력사는 자주와 정의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부정의의 힘을 짓몽개버릴 자기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고수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땅에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던 때에도 우리의 자주권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자기의 힘으로 강도일제를 때려부셨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자주와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비방하고 압력을 가하였지만 우리는 자력자강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가 달려있다는 진리를 새겨안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전후복구건설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수행해나갔다.

그처럼 간고하였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변함없이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웠기에 우리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릴수 있었고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며 자주와 정의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앞장에서 선도해나갈수 있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에 의한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찬사를 받아야 할 쾌거였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잃고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놀아나 비법적인 《결의》들을 날조함으로써 유엔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조선반도문제해결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는.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유엔무대에서 특정세력의 강권과 전횡에 놀리워 유엔헌장에 새겨져있는 자주권존중과 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개별적나라의 세계체패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는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조선반도핵문제나 우리의 합법적인 위성발사문제,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정의와 국제법을 란폭하게 짓밟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처사를 낱알이 고발해주고있으며 그것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조선은 유엔의 현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진렬장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의 조선의 현실은 유엔에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엔을 더는 구원하기 어렵게 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었고있다. 오늘날의 유엔에는 정의라는 것이 없다는것을 소경도 알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유엔의 결의 아닌 《결의》까지 도용하면서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타고났고 그를 발판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력대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해온 미국은 해마다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일삼아왔다.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은 현대적인 무장장비들과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벌릴 때마다 우리를 지역의 평화와 안정 파괴의 주범으로 몰고 저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허리띠를 조이며 위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에 힘을 넣어 주체106(2017)년 2월 12일에 진행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력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한것은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였다.

국방분야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을 수치스러운 파멸의 길에 몰아넣었으며 선군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비상이 높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12월 새로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날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현대적무기도 척척 만들수 있게 되었다고,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빈터우에서 자립적국방공업의 기초를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은 만고의 명장, 만고의 명인, 만고의 대성인이시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속에서 만들어진 한자루한자루의 총이 오늘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총대숲으로 무성해졌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올리신 역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올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는 우리의 군수공업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의 선언이었다.

우리의 첫 수소탄의 장엄한 퇴성이 올리였을 때 미국은 저들의 머리우에 핵불벼락이 쏟아지길라도 한것처럼 혼비백산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는니, 국제적인 체재공조를 실현하여 보다 가혹하게 압박해야 한다는니,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그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 공화국은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총포성이 울리지 않은것은 우리의 강위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

이 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도높은 위협과 압박, 제재로 하여 상상도 할수 없는 것처럼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대비약, 대혁신이 창조되고 마식령스키장과 미래 과학자거리, 려명거리와 같은 강성변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채 단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악랄한 고립압살책동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워 정의의 위업수행에 과감히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으며 승리는 정의와 진리의 편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악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불의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이 행성에서 우리 공화국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척척 풀어나가는 자주의 강국, 그 어떤 적대세력도 함부로 덤벼들수 없는 불패의 핵강국으로 일떠선데 대하여 우리 인민은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국제적정의를 실현하는데서 자력자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는것이 국제적정의실현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자주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과의 첨예한 투쟁을 동반하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적인 새 세계를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그런것만큼 자주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주인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그런데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은 그 침략적본성으로부터 자주와 정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억압말살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한다. 때문에 인민대중의 투쟁에 역행하는 반동세력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이 없이는 자주와 정의를 실현할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정의가 란폭하게 유린당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 통제하며 그들에게 저들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실현에 방해로 되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보다 강화하고있다.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책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허용, 묵인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힘에 의거하여 세계를 지배하려고 날뛰면서 거기에 《정의》의 외피를 씌워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은 정의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론리는 힘이 강한자가 지배자이며 이기는것이 곧 정의라는것이다. 이것은 력사의 정의도,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도 무엇인지 모르는자들의 황당무계한 꾀변이다.

미국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살륙만행을 감행하면서도 저들이 마치

도 정의의 대변자라도 되는듯이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문제》, 《대량살륙무기제거》와 《반테로》 등을 부르짖고있다.

《국제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고있는 미국이 찍하면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떠벌이고있는것도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고안해내어 저들의 내정간섭과 압력, 침략과 정부전복책동을 합리화하는데 써먹기 위해서였다.

현시기 여러 지역에서 침략과 전쟁행위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세계가 혼란에 빠져 들고있는것은 다른 나라들의 국가주권을 무력으로 유린하는것을 오락처럼 여기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군사적간섭행위가 몰아온 후과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사상최대의 피난민사태는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며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범죄적정체를 낱알이 고발하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의 그 무슨 분쟁해결능력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중재》의 간판밑에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이래라저래라 하는 한편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반대파세력을 부추겨 소요를 일으키게 하고는 그들을 《인권옹호》투사로 추어주고 자금과 무기까지 대주면서 정권전복으로 내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횡포와 전횡앞에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양보와 후퇴, 타협의 길을 선택한것으로 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고 리익이 침해당하고있다.

지금 날로 횡포해지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책동으로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내란의 격화와 날로 우심해지는 테로행위로 말미암아 국제적으로 평화가 심히 파괴되고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 나라들이 내란에 시달리고있으며 유럽의 많은 나라들까지도 테로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어가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이 각종 구실밑에 전쟁을 도발하고 강압적으로 가로타고 앉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세계의 우려를 자아내는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고있는것은 현시기 국가주권유린행위의 후과가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 힘을 키우지 않으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기만과 회유에 넘어가 부정의의 회오리바람속에 휘말려들게 되고 자기의 자주권도, 생존권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국제적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힘이 없어 강자가 호령하면 섬겨바치고 위협하면 물러서다 못해 통채로 먹히우는 비극적인 현실들을 끝장내고 국제적정의를 실현하자면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강력한 군력은 나라와 민족의 힘이고 존엄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힘에 의거하여 세계를 지배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오늘 그 어떤 리론이나 구결로 자기를 지킬수 있다고 생

각하는것은 망상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강자들의 룡락물로 되며 정의와 량심도 지켜낼수 없게 된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국가주권을 힘으로 유린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자기 나라 주권을 절대로 지켜낼수 없다.

제국주의반동세력과의 대결은 사상의 대결인 동시에 힘의 대결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힘이 강한 나라들은 어찌지 못하고 힘이 약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강권과 전횡에 매달리고있는 조건에서 힘이 약하면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노예가 되며 죽음을 면치 못한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자기 힘이 강할 때만이 국제적정의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의 힘, 자위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감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자력자강, 국제적정의